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0 년 4/4 분기)

2020 년 12 월 15 일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해 주시는 선교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지하며 정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2020 년 4/4 분기 선교소식을 선교 동역자 여러분과 나누며,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IED)주일학교 교재(공과책) 사역입니다.

총회 주일학교 교재 출판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2015 년 5 월 7 일에 제 1 권 시리즈(교사용, 청장년부용, 중고등부용, 유년부용, 유치부용)가 선교 동역자 여러분과 도미니카공화국 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제 4 권 시리즈가 출판되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매우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재출판위원장인 장 선교사가 묵묵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이 사역을 위해 은사가 있는 총회 산하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집필위원들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5 권의 집필 마지막 작업과 6 권의 집필을 병행하는 가운데, 최근에 아동부 교재 집필위원 중 베네시아 마테오(Venecia Mateo) 교사, 중고등부 교재 집필위원 중 마리솔(Marisol Mariolande) 교사 등이 차례로 코로나 19 에 확진되었고, 아동부 교재 집필위원 중 레이닐다(Reinilda Villavisencio) 교사의 어머니가 확진되어 사망하면서 5 권 시리즈 집필 마무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 장학사역입니다.

총회 장학사역이 위원장 장은경 선교사, 부위원장 넬슨(Nelson Rodriguez) 목사님, 서기 마리아 보꾸(María Bock Barett) 목사님, 그리고 각 노회 대표 목사님들과 함께 구성된 총회 장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98 년의 역사를 가진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의 미래 세대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에 총회 차원에서 올 한 해도 장학금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후원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19 로 인해 장학생들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더욱 귀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장학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학생이 속한 교회 목회자들의 장학생 관리의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장학생 평가 운영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분들께 깊은 감동을 받고 있으며, 장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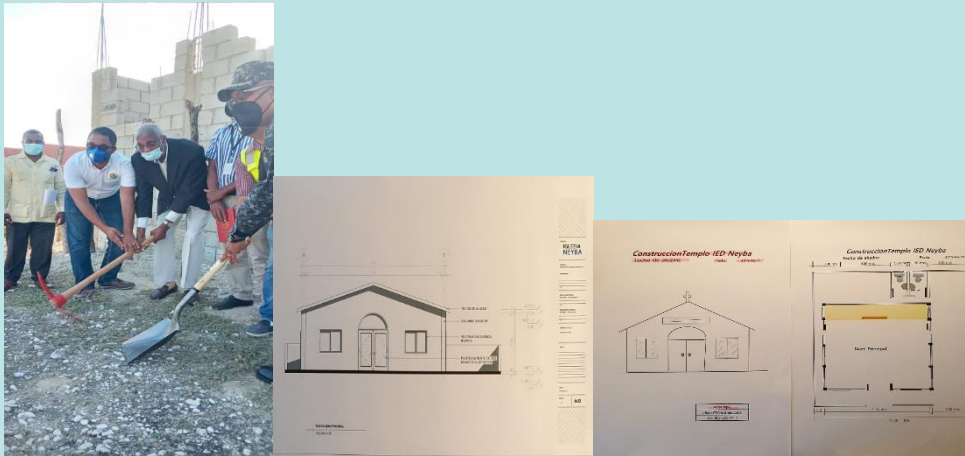
셋째, 네이바(Neyba) 교회 건축 사역입니다.

그동안 5 년 이상 기도로 준비해 왔던 서쪽 노회 소속인 네이바교회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개봉제일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이 준비되었지만, 저희 가정의 선교 원칙 중 하나인 '현지 교회가 예배당 부지를 준비'할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기로 했기에 네이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여 교회 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네이바교회 성도들은 지난 5 년 동안 꿀을 팔고, 바나나, 유가 등의 음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음식 바자회를 열었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 전국교회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서쪽노회 산하 교회들은 네이바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5 년 동안 모은 헌금(원화로 200 만원 정도)으로 예배당 대지를 지난 2019 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바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금년 코로나 19 로 건축 시작이 늦어지긴 했지만, 지난 11 월 17 일에 마침내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기공식에는 간꾸 목사님(총회 총무), 엘리야 목사님(서쪽노회 노회장), 에잔(네이바 주 경찰청장), 하이로 목사님(네이바교회 담임목사), 루이스 목사님(서쪽노회 상 후안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네이바 주지사(Sindico Neiva)도 참석하여 건축할 때 내야 할 세금과 교육세 등을 면세로 해 주었습니다. 이제 네이바 교회 성도들의 평생 숙원 사업인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이바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앞에서

하이로 목사님과 함께 구입한 대지 위에서



11 월 17 일에 있는 기공식 모습

네이바교회 설계도

넷째,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스페인어 찬송가(Himnario Ecuménico) 개정 3쇄 출판에 관한 사역입니다.

2022년이 되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전국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구전으로 가르쳐 준 찬송가 몇 곡을 예배 때마다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교단 총회 임원회에서는 찬송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은경 선교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찬송가 편찬위원회는 심혈을 기울여서 총회 산하 전국교회가 사용할 찬송가를 제작하기 위해 기도하며 사역에 전념하였고, 그 결과 2004년에 연동교회 후원으로 첫 번째 찬송가가 출판되었고, 전국 교회에서 공적 예배 시간에 사용하도록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준비한 개정 증보판은 2013년에 40여곡을 추가하여 개정 증보판을 출판하였고, 현재까지 전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

니다. 찬송가가 없이 몇 개의 곡을 반복해서 찬양하던 성도들은 그들의 찬송가를 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지를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회 찬송가(Hinamrio Ecuménico)의 구성은 송영,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하여 총 284 곡의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성례, 천국,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 선교, 절기, 예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맨 뒷부분에는 라틴 아메리카 신앙고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개척교회 전통의 찬송가뿐 아니라, 현지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찬송가 서문 끝부분에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교회들의 예배, 교육, 복음전도, 영적 성숙을 위해 연동교회에서 이 찬송가 출판을 후원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는 초판 1쇄부터 한국장로교출판사에서 출판함으로써 선교지의 열악한 기후와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찬송가는 20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총회가 맺은 선교의 양해각서(MOU)에 따른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 동반자 선교의 열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대표한 연동교회와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2004년 초판, 2009년(9월 20일) 2쇄, 2013년(10월 30일) 개정 1쇄, 2015년 개정 2쇄를 출판하여 반포하였고,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전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귀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2월 출판되는 개정 3쇄가 잘 출판되고, 선적되어 도미니카공화국에 잘 도착하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코로나 19라는 큰 장벽이 진을 치고 있지만, 선교사보다 먼저 선교지에 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미니카공화국 선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1년에도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과 2021년 새해에도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역, 교회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종성 목사, 장은경 선교사 드림